

KIA 외국인 선수들 순위 싸움에 힘 보탠다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순위 싸움에 청신호가 켜졌다. 5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한 KIA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사직원정을 시작으로 후반기 일정을 열었다.

분위기는 좋다. 일단 주말 3연전에서 화력 공세를 펼치면서 승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고, 후반기 순위 싸움의 키로 꼽혔던 외국인 선수들의 움직임도 좋다.

일단 후반기 선발진 스타트를 끊은 새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노니가 기본 좋은 KBO 데뷔승을 거뒀다. 파노니는 지난 22일 롯데전에서 첫 승 사냥에 나섰다.

그는 앞선 7일 KT와의 홈경기를 통해 KBO에 첫선을 보였지만, 3회 2사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노게임'이 선언됐다.

그리고 두 번째 등판 역시 비로 하루 미뤄지면서

파노니 롯데전서 KBO 데뷔 승 놀린 퓨처스리그 등판 합격점 소크라테스 재활하며 복귀 시동

14일 LG를 상대로 KBO리그에 정식 데뷔했다. 결과는 4.1이닝 6피안타(1피홈런) 1탈삼진 4실점으로 좋지 못했다.

세 번째 등판에서는 타선의 지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3회 KIA 타자들이 롯데 선발 반즈를 상대로 한 번에 4점을 뽑아내면서 파노니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파노니도 경기 시작과 함께 첫 상대 안치홍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1·2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이후 5회까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킨 파노니는 6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선두타자 황성빈에게 우중간 2루타를 맞은 파노니는 이대호에게 좌월 투런포를 허용하는 등 6회는 채우지 못했지만 5.1이닝 6피안타(1피홈런) 2볼넷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고, 경기가 5-2 승리로 끝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같은 날 2군에서는 선 놀린이 움직였다. 놀린은 5월 25일 왼쪽 종아리 근육 파열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7월 13일 상무야구단과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서 다시 마운드에 섰다.

부상 후 첫 등판에서 1.2이닝 3피안타 1볼넷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던 놀린은 이번에는 KT 위즈를 상대로 컨디션 점검을 받았다.

두 번째 등판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놀린은 이날 63구를 던지면서 4이닝 2피안타 2볼넷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4km.

2군에서 점검을 끝낸 놀린은 오는 27일 안방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통해 1군 복귀전

을 치를 예정이다.

놀린으로 초반 싸움을 벌인 KIA는 이날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퓨처스리그 14연패에서 탈출했다.

또 선발 등판에 앞서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점검에 나선 한승혁은 3이닝 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고, 유승철과 윤중현도 각각 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1이닝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발목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던 박동원도 이날 두 타석을 소화하는 등 KIA의 후반기 순위 싸움에 불이 붙었다.

소크라테스도 지난 20일 재활군에 합류해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7월말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크라테스는 29일 개 2군 경기에서 나서 몸상태를 점검받을 예정이다.

소크라테스까지 가세하면 KIA는 마침내 '외국인 선수 완전체'를 구성해 상위권 도약을 위한 질주에 나서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파노니



강성진(가운데)이 24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동아시아컵 남자부 2차전 한국과 홍콩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강성진 멀티골 ... 벤투호, 홍콩 3-0 완파

동아시아컵 2연승 선두

벤투호가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에서 홍콩을 꺾고 2연승을 달리며 대회 4연패 꿈을 키워갔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24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홍콩과 치른 대회 2차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포함한 멀티 골을 터트린 '막내' 강성진(서울)과 추가 골을 넣은 베테랑 수비수 홍철(대구)의 활약을 엮어 3-0으로 이겼다.

20일 중국과 첫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챙긴 한국은 중국

(1패)과 2차전을 앞둔 일본(1승)을 제치고 일단 선두로 나섰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인 한국은 이번 대회 출전국 중 최약체로 꼽히는 홍콩(FIFA 랭킹 145위)과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22승 5무 2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은 2003년 시작된 동아시아컵에서 최근 3회 연속(2015년, 2017년, 2019년) 및 통산 최다인 5차례 우승을 이뤘다.

벤투호는 27일 오후 7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일본과 대회 우승을 놓고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주축인 유럽파 없이 K리그 중심으로 이번 대회에 나선 한국은 중국과 1차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선발 라인업을 구성해 홍콩과 싸웠다. 선수 점검과 함께 사실상 챔피언결정전이 될 일본과의 3차전에 대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한국은 전반 17분 강성진의 한 방으로 분위기가 바꿨다.

상대 중원에서 김진규가 내준 공을 강성진이 받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왼발로 슈팅한 공이 수비수를 스쳐 골결된 뒤 코르스바까지 맞고 홍콩 골문 안으로 떨어졌다.

이번 대회 중국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2003년생의 대표팀 막내 강성진이 A매치 두 번째 출전 경기에서 기록한 첫 골이었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19세 120일의 강성진은 박지성(19세 103일)에 이어 11번째로 어린 나이에 A매치에서 득점한 한국 선수가 됐다.

한국은 후반 29분 한 발짝 다가갔다. 김진규가 후반에서 상대 수비 뒤 공간으로 찢러준 공을 왼쪽 풀백 홍철이 잡아 골 지역 왼쪽까지 문 뒤 과감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홍철이 A매치 44번째 출전 경기에서 경험한 첫 골 맛이었다.

후반 31분 김진규와 이재익을 불러들이고 이영재와 김주성(이상 김천)을 내보낸 한국은 후반 41분 강성진의 득점으로 쐐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김민재, 나폴리 가나

이탈리아 언론 "계약 완료"

이탈리아 축구 명문 나폴리의 아우렐리오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직접 한국 국가대표팀 핵심 수비수 김민재(26·페네르바체)의 영입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24일(한국시간) 유럽 이적시장 전문 축구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데라우렌티스 회장은 "김민재와 계약 과정이 얼른 끝나길 바란다"며 "계약이 24시간 내 이뤄지면 좋겠다. 그렇지만 세금 등을 놓고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지 매체 스포치오 나폴리에 따르면 데라우렌티스 회장은 구단 공식 라디오 채널인 키스키스 나폴리와 인터뷰에서도 "(김민재가) 전날(현지) 도착하길 바랐는데, 변호사 등이 중간에 개입하면 계약이 복잡해진다"며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김민재와 나폴리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채워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니콜로 스키라는 트위터를 통해 나폴리와 페네르바체(튀르키예)와 합의를 마쳤으며 김민재와 계약도 이미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키라는 페네르바체에 1950만유로(약 261억 원)를 이적으로 지불한 나폴리와 김민재의 계약은 2025년까지로, 2년 연장 옵션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민재는 매년 250만유로(약 33억5000만 원)를 수령한다고 계약 세부 사항을 밝혔다.

/연합뉴스

여자축구, 중국과 1-1

동아시아컵 2차전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공격수 최유리(현대제철)가 중국을 상대로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에도 활짝 웃지 못했다.

콜린 벨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 23일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2차전에서 중국과 1-1로 비겼다. 한국은 전반까지만 해도 최유리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으며 공격을 주도했다. 일본과 1차전(한국 1-2 패)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최전방에 선발로 출전한 최유리는 0-0으로 팽팽히 맞선 전반 34분 기다리던 선제골을 뽑아냈다.

그는 조소현(토트넘)이 짧게 내준 패스를 페널티 지역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슈트로 연결했고, 상대 골키퍼가 손을 쓸 새도 없이 공은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최유리가 자신의 43번째 A매치에서 기록한 8번째 득점이다.

하지만 한국은 후반 31분 중국 왕린린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1-1로 경기를 마무리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컵 1무 1패를 기록해 17년 만의 우승 도전이 좌절됐다. 더불어 중국과 A매치에선 9경기째(3무 6패) 무승 고리를 끊지 못했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4승 8무 29패로 열세다.

한국은 지난해 4월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에서 중국에 합계 3-4로 패해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조아연, 호반 서울신문 클래식 우승 시즌 2승

조아연(22)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호반 서울신문 클래식(총상금 10억원)에서 역전 우승하며 시즌 2승 고지에 올랐다.

조아연은 24일 경기도 이천시 H1클럽(파72·665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조아연은 공동 2위 선수들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장성민이 대회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신인 시절이던 2019년 2승을 거둔 이후 2020년과 2021년 우승이 없었던 조아연은 올해 5월 제8회 고촌 허니 레디스오픈에 이어 시즌 2승, 투어 통산 4승을 달성했다.

이번 시즌 2승은 3승의 박민지(24)에 이어 조아연이 두 번째다.

2라운드까지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2위였던 조

아연은 8~10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낚으며 선두와 격차를 1타로 좁혔다.

8번 홀(파3) 그린 밖에서 시도한 칩샷이 홀을 빙글 돌고 들어가는 행운의 버디가 됐고, 9번과 10번 홀에서는 5~6m 거리의 만만치 않은 퍼트를 넣고 한 타씩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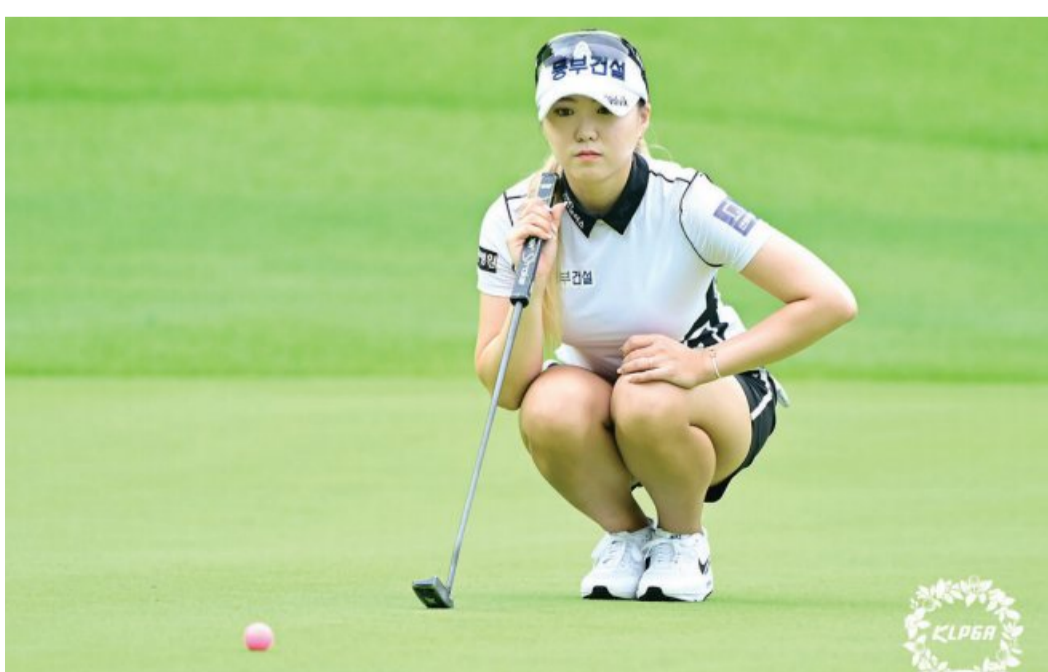
11번 홀(파5)에서 약 2m 버디 퍼트가 들어가지 않아 공동 1위가 될 기회를 놓친 조아연은 이때 1타 차 선두였던 이재영(21)이 12, 13, 15번 홀에서 한 타씩 잃는 난조를 틈타 선두로 치고 나갔다.

조아연은 14번 홀(파3)에서 약 6m 버디로 2타 차로 달아났지만 16번 홀(파5) 약 2m 퍼트 퍼트를 맞고 나가 2위 그룹에 다시 1타 차로 쫓겼다.

그러나 조아연은 17번 홀(파3)에서 약 8m 거리 버디를 넣고 2타 차로 달아나 승세를 굳혔다.

하민승(26)과 황정미(23)가 나란히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조아연(22)이 24일 경기도 이천시 H1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호반 서울신문 클래식에서 퍼팅 리라이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